

마태오 복음서 22장

혼인 잔치의 비유(루카 14,15-24)

- 1 예수님께서서는 또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2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 3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1)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느님, 아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종들은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받은 예언자들이며, 먼저 초대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혼인 잔치를 상징한다.

2) ”혼인 잔치“에 해당하는 그리스말은 복수로 쓰인다. 잔치가 여러 날(일주일)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혼인은 성경에서 자주, 하느님과 그분 백성의 기쁘고 결정적인 일치의 상징으로 쓰인다. 이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은 혼인하는 아들이 아니라, 처음에 초대받은 자들의 불응이다,¹⁾

- 4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 5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 6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처음에 초대받은 자들은 세상일에만 관심을 두고, 임금의 초대를 무시한다. 심지어 파견받은 종들 곧 예언자들을 박해하였다.

- 7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²⁾
- 8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 9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 10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 11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

1)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35쪽, 각주 2.

2) 아마도 기원후 70년에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일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뒤 마태오 복음서의 이 6-7절이 비유에 덧붙여졌든지, 아니면 비유 전체가 70년 이후에 마지막 꼴을 갖추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위, 각주 4).

고,

- 12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³⁾
- 13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 14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 1) 처음에 초대받은 자들은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고을 어귀로 보내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초청한다.
- 2) 혼인 잔치에 오도록 부르는 마지막 초청은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 3) 혼인 잔치의 초대는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
곧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 선행을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마르 12,13-17; 루카 20,20-26)

- 15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께 올라미를 씹을까 하고
의논하였다.
- 16 그러고는 저희 제자들을 헤로데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
십니까.
- 17 그러니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
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
를 시험하느냐?
- 19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그들이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오자
- 20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 21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
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 22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탄하면서 예수님을 두고 물러갔다.

- 1) 로마제국에 속한 각 지방에서는 간접세 외에도 직접 조세를 내야 했는데, 이는
모든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과 늙은이들만 제외되었다. 유대인들

3) 묵시 19,8 :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 특권을 받았다. 고운 아마포 옷은 성
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은 이러한 세금을 내는 것을 자기들의 민족이 로마에 종속되었음을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표지로 여겼다. 그래서 열형 당원들은 지지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금지시켰다.⁴⁾

- 2)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고 지혜롭게 말씀하심으로 써,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의 간교한 질문을 피해가신다.
- 3) 황제 또한 사람이며 피조물이기에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라는 뜻이지만, 하지만 세상의 질서와 규범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⁵⁾

부활 논쟁(마르 12,18-27; 루카 20,27-40)

23 그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⁶⁾

사두가이들은 기록된 율법 독 모세 오 경만 경전으로 간주하였고, 이 오경 안에는 부활을 확인해 주는 말씀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⁷⁾

- 24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죽은 이의 아내와 혼인하여 그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⁸⁾
- 25 그런데 저희 가운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는데, 후사가 없어서 아내를 동생에게 남겨 놓았습니다.
- 26 둘째도 셋째도 그러하였고 일곱째까지 그러하였습니다.
- 27 맨 나중에는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 28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 일곱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 1) 신명기⁹⁾ 바탕으로, 남편이 죽고 난 후 아내가 죽은 남편의 형제와 혼인하는 역연혼(逆緣婚)을 말하는 것이다. 이 혼인의 목적은 한 집안을 지속시키고 죽은 이에게 상속인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¹⁰⁾

4) 앞, 136쪽, 각주 15.

5) 1베드 2,13 : 주님을 생각하여,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로마 13,7 : 여러분은 모든 이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내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6) 사도 23,8 :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7) 앞, 각주 16.

8) 창세 38,8 :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네 형수와 한자리에 들어라. 시동생의 책임을 다하여 네 형에게 자손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

9) 신명 25,5-6 :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죽은 그 사람의 아내는 다른 집안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없다. 남편의 형제가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시숙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첫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두가이들은 부활의 관념이 이 율법과 조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부활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한 것이다.

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30 부활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31 그리고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해서는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않았느냐?

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33 군중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였다.

1) 부활에 대한 부정은 하느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2) “천사들과 같아진다.”라는 것은 혼인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을 섬기고 찬미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다.

3)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이 죽고 만 존재라면,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은 옛날을 기억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느님은 언제나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시다.

3) 인간은 본디 불사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범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드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서, 우리를 부활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 주셨다.

가장 큰 계명(마르 12,28-34; 루카 10,25-28)

34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35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36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38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39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¹¹⁾

40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10) 앞, 137쪽, 각주 17.

11) 로마 13,10 :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갈라 5,14 :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 1) 사람의 첫째 의무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계명이 모든 법의 근본이며 완성이다.
- 2) 이웃을 사랑함이 하느님을 사랑함으로, 하느님을 사랑함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나야 한다.¹²⁾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마르 12,35-37; 루카 20,41-44)

- 41 바리사이들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 42 “너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 4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도움으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찌 된 일이냐?
- 44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아래 잡아 놓을 때까지.’”¹³⁾
- 45 이렇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 46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님께 감히 묻는 사람도 더 이상 없었다.

- 1) 예수님의 질문은 유다인들에게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의 인성만을 알고 있었지, 신성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2) 메시아는 인성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시나, 신성으로는 다윗의 하느님이시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참사람이시며 참 하느님이시다. 곧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마련해 주신 참 하느님이시며 참사람이시다.

12) 1요한 4,20-21 :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 사도 2,34-35 :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히브 1,13 :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